

내일 토기회의 어제와 오늘



홍성영

총무이사, 49기
(주)스마트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올해로 토기회가 출범한지 만20년이 지났습니다. 사람의 나이로 치면 성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회원들의 오랜 숙원인 사단법인을 설립함으로써 법인격체로서 새로운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토질및기초기술사들의 임의적인 친목 단체로서 회원 상호간 친목 및 교류 활동을 위주로 하던 토기회는 이제 엄연한 법적 실체로서 수준과 내용면에서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활동을 요구받고 있으며, 급격히 변하는 사회 환경 및 회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욕구 또한 토기회의 변화와 발전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회원들 모두 토기회가 앞으로 무엇을 향해,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다양하면서 활발한 논의를 통해 총의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은 이러한 논의에 대한 기초 발제의 성격을 띤 글로서 창간호의 지면을 빌어 토기회의 미래 방향에 대한 현 집행부의 의지와 전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미래는 오늘의 결과이며 오늘은 어제의 결과입니다.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계획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처한 오늘의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나온 길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토기회의 전통에 대한 자부심을 회원들 모두가 공유해야 토기회의 결집력과 참여 동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래를 위한 제언에 앞서 토기회의 어제와 오늘에 대해서도 큰 맥락의 줄기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토기회의 어제

이 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기회의 미래 지향에 초점을 맞춘 글이지 토기회의 역사를 정리하는 글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나온 역사에 대한 세세한 고찰보다는 큰 흐름의 성과와 한계를 정리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1. 토기회의 태동

먼저, 토질및기초기술사 이전에 기술사란 제도와 용어가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기술사 제도는, 1963년 11월 11일 국가 경제 개발 5개년 사업의 일환으로 경제기획원에서 제안하여 기술사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탄생되었습니다. 이듬해인 1964년 12월 17일 제 1회 기술사가 13개 부문 64개 분야에서 67명이 배출되었으며, 이들이 모여 1965년 한국기술사회를 설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토질및기초기술사는 1969년 제 6회 기술사 시험에서 최초(고 김춘호 고문)로 배출되었고, 1980년 이전까지 25명의 기술사가 배출되었습니다. 토질및기초기술사들이 친목 모임 형태로 첫 모임을 가진 것은, 1981년 6월 8일에 토질 기초 분야 수가 제정 및 품셈 보완 의뢰에 대한 회의 차 박찬호, 심재구, 양현승, 임규원, 임철용, 조서일(이상 7명) 회원들이 참석하여 자연스럽게 토질기술사 모임이 개최되었습니다. 동년 6월 16일 간사에 박찬호, 총무에 양현승, 총무 보조에 이재현 회원을 선임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씩 월례 친목 모임을 개최하였으며, 이듬해인 1982년에도 월례 모임이 꾸준히 이어져 연말까지 총 17차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임의 계기는 응용

지질기술사들과의 업역 조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983년 7월 모임에서야 비로소 초대 임원진을 구성하였는데, 회장에 김주범, 총무에 이재영, 간사에 임규원 회원을 선임함으로써 비로소 회장 체제의 공식적인 조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2. 1980년대

이 시기에 토질및기초기술사는 년평균 2-3명 정도 배출되었으며, 아예 배출되지 못한 해도 있었습니다. 수요 증가에 대한 요구도 강하지 않았을 뿐더러, 기술사의 질적 수준에 대한 엄격한 기준에 대한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토질기술사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회소성에 따른 자격증의 로얄티를 보장받을 수 있었으며, 속된 표현을 빌면 자격증만 가지고도 먹고 사는 데에 지장이 없는 환경이었으나, 토기회라는 조직의 측면에서는 사회적으로는 물론 업계에서도 하나의 조직으로서 발언권이나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숫적 소수의 위치를 벗어날 수 없는 한계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의 토기회는 대외적으로 의미있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물적, 인적 토대가 취약하였고 자연히 친목, 교류 위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회원 상호간에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높은 참여도 및 결속력을 갖게 된 것은 좋은 전통으로서 오늘에까지 계승되고 있는 바, 이 시기 토기회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1990년대- 2000년대 초반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토질및기초기술사의 급

격한 숫적 증가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1990년 이전까지만 해도 토질및기초기술사는 그 총수가 50여명 정도에 불과하였는데, 1990년 이후 토질및기초기술사 시험의 합격 인원이 급증하기 시작하여 시험 횟수의 증가(연 1회에서 연2회, 연 2회에서 연3회로 증가)와 아울러, 회당 합격 인원이 평균 10명을 초과함으로써 1997년도에 300명을 넘어서게 됩니다.

수요(용역 시장의 기술사 수요)의 확대에 따른 공급의 증가 필요성이 토질및기초기술사의 급격한 배출의 근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으나, 기술사의 의무 고용 및 의무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던 기술용역육성법 대신 엔지니어링진흥법이 제정되고 인정기술사 제도가 도입되는 등의 제도적 환경 변화 역시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토질및기초기술사의 급격한 증가 추세는 IMF 경제 위기를 맞이한 이후에도 더욱 늘어나서 1999년에 500명이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토질및기초기술사의 업역 확대를 들 수 있습니다. 지반조사, 도로 사면 관련 업무가 주된 비중을 차지하던 이전 시기와 달리, 터널 설계를 토질 분야에서 담당하기 시작하였고, 개발붐을 타고 급격히 증가한 도심지 굴착 공사의 설계 업무가 폭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업역 확대는 용역 회사의 토질부 또는 지반공학부에 활력을 불어넣게 되어 토질및기초기술사의 예비군격인 토질 분야 종사자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졌고, 아울러 대학에도 영향을 미쳐 각 대학의 대학원에서 지반공학 전공자들 수가 크게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에 따라 토질 분야에 고급 인력이 대폭 유입되면서 토질및기초기술사의 숫적 증가를 뒷받침하는 구조를 구축할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숫적 증가 및 업역의 확대는 토기회 회원들의 직업 구성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업역의 확대는 굴토 및 터널이라는 토질 분야내 소전문분야의 정립과 함께 이를 담당하는 전문회사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지고, 여기에 턴키 및 대안입찰 공사의 활성화와 맞물려 소규모 전문용역회사를 경영하는 회원들이 급속히 증가하는 토대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토기회에는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경영자에 준하는 위치를 차지하는 회원들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시공사의 연구소 및 설계팀에서도 상당수의 토질및기초기술사가 배출되어 용역회사 위주의 직업 구성에도 또 다른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회원 상호간 교류의 폭을 넓힘으로써 토기회가 회원 상호간 효과적인 교류의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를 거치면서 토기회 역시 회원수의 급속한 증가, 기금 마련, 모임의 활성화, 동호회(골프, 등산) 조직의 구축 등 적지 않은 성과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러나, 급격한 숫적 증가의 대다수를 차지한 30대 젊은 기술사들의 참여 저조, 조직 체계 및 기반의 취약성, 친목회 수준의 낮은 위상, 대외 활동의 저조 등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특히, 조직 기반이 취약한 관계로 회장단의 면면에 따라 토기회의 성과가 큰 차이를 보이게 되고 토기회의 성과가 발전적으로 계승되지 못하고 단절되었던 점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평가되나 이는 친목회 조직이라는 한계상 어쩔 수 없었던 측면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토기회의 오늘

1. 토기회의 현황

토질및기초기술사 총인원 694명, 가입 회원 302명, 자산 약 1억 2천만원, 외형상 지표로 본 사단법인 한국토질및기초기술사회의 현주소입니다.

회원들의 직업 구성을 살펴 보면, 사업체를 운영하는 회원이 약 17%, 건설회사에 종사하는 회원이 약 11%, 설계회사에 종사하는 회원이 약 62%, 공무원 및 공기업 등에 종사하는 회원이 약 9%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연령별 구성을 보면, 30대가 24%, 40대가 56%, 50대가 17%, 60대 이상이 3% 정도의 분포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력별 분포 현황을 보면, 학사 25%, 석사 52%, 박사 23%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고졸 이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기 통계는 전체 회원이 아니라 상세 정보가 기록된 회원 명부를 제출한 170명의 자료를 기준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 수치는 아니지만 대략의 경향과 현황을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결과를 정리하면, 토기회 회원은 연령별로는 40대, 학력별로는 석사학위 소지자, 직업적으로는 설계 회사 종사자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기회 회원의 평균적인 모습은 설계 회사에 근무하는 40대의 석사학위 소지자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들의 학력 수준은 약 70% 가량이 석사 학위 이상으로서 사회 어느 조직과 비교하더라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2. 토기회의 사단법인화

토기회의 현재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라 한다면 아마 사단법인으로의 전환일 것입니다. 그동안 소식지 등을 통해 그 의미에 대해 여러 차례 정리한 바 있습니다만, 이 글을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토기회가 사단법인이 된 것은 크게 보아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법인이 됨으로써 비로소 토기회가 법적 실체와 지위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토기회는 친목도모를 위주로 하는 임의단체였으나, 이제는 기술사법에 근거한 인가법인으로서 국가의 공적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해에 기술사의 업역 조정과 관련하여 토질및기초기술사를 없애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어 회원들의 분개를 산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누군가 없애고자 해도 기술사 전체를 없앤다면 모를까 토질기술사를 어떻게 하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또한, 기술사 단체의 공식 일원으로서 각종 회의 등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둘째, 토기회의 공신력과 위상이 제고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이 곧 공익 단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사회적 통념상 어느정도 공적 성격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갈등의 중재자나, 감정 및 판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특정 사기업이나 개인이 수행하기 힘든 용역을 토기회의 이름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 회원 개개인의 역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대나 영역에 대해 토기회의 이름으로 상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기회가 대외 활동 및 공익 활동을 여하히 전개하느냐에 따라 그 폭과 깊이가 달라질 것입니다.

3. 토기회의 강점과 한계

토기회의 강점으로는, 먼저 노·장·청 세대간의 조화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조직이건, 특정 세대만의 조직이 아닌한 노·장·청의 조화가 조직의 안정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우리 토기회는 가장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 차이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대체로 모든 연령층에 걸쳐 적절한 구성비와 참여율을 가지고 있으며, 예우와 존중, 배려와 양보라는 선후배간의 미덕이 아름다운 전통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현 집행부를 40대의 젊은 일꾼들로 세대교체할 수 있었던 것도 선배 회원들의 양보와 배려에 힘입은 바 큼니다. 참고로, 토목 분야의 다른 기술사회를 보면, 60대가 모임을 주도하고 50대가 심부름을 담당하고 40대 이하는 참여 자체도 하지 않고 있는데, 어느 조직이 더 힘을 발휘하고 발전할 것인가는 불문가지입니다.

여기에, 현업에서 책임있는 자리를 차지하여 현실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40, 50대의 중장년층 회원들이 토기회 조직의 중추를 이루면서 토기회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봉사를 하고 있으며, 아직은 참여 정도가 높지는 않으나, 30대의 많은 젊은 기술사들이 토기회의 저변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토기회는 세대 구성 면에서 많은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회원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들 수 있습니다. 토기회 역시 회원 가입률 및 참석률 등의 측면에서 앞으로도 개선해야 할 점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술사 모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참여도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할 수 있습니다. 월례모임의 경우, 매월 모임임에도 불구하고 4-50명의 회원들이 꾸준히 참석

하고 있으며, 기타 각종 회의 및 전문위원회 모임, 동호회 모임, 총회 모임 등을 합하면, 상당수 회원들이 토기회의 각종 모임에 유기적으로 참여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차적으로 토기회에 대한 회원들의 높은 관심도와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토기회가 사단법인으로 지위와 위상이 높아지고 전문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 공간이 제도적으로 상설화되고, 기술사간의 업역 분쟁 및 PQ 배점을 둘러싼 마찰 등을 겪으면서 단결의 필요성에 대한 회원들의 각성이 영향을 미친 결과일 것입니다. 다른 분야 기술사들이 토기회를 매우 부러워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 회원들의 열의와 참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직업 및 수행 업무의 다양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토기회는 시공, 용역, 기업 경영에 종사하는 회원들이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도로나 구조, 상하수도 등 대다수가 용역 회사에 종사하는 다른 분야 기술자들과는 달리, 이러한 직업 구성이 토기회 모임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회원 상호간은 직업적으로는 동일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만, 사업적으로 또는 소속 회사의 수주라는 측면에서는 이해관계의 충돌 요인을 안고 있는 경쟁자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직업 구성이 편중되어 있지 않고 다양성을 갖추고 있는 관계로 마찰보다는 조화와 경험의 공유라는 장점을 살릴 수 있고, 토기회 모임을 통해 다양한 인간관계를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다는 강점이 모임의 활성화에 적지 않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젊은 세대의 참여율 제고, 다양한 활동 공간의 창출, 대외 공익 활동의 참여 등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도 적지 않게 안고 있습니다.

토기회의 내일

토기회가 앞으로 특히 머지 않은 시기에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 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1. 토기회의 목표와 지향

내부적으로 강력한 결속력, 안정된 조직 체계와 재정 기반을 구축하고, 대외적으로는 전문가 단체로서 신망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공신력과 위상을 확보하는 것을 제일의 목표로 삼아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도로, 구조 등 토목 분야 타종목 기술사들과 연대하여 개별 종목의 자주적인 기술사회를 바탕으로 한 토목 분야 연합기술사회를 지향해야 합니다.

기술사로서 이해 관계의 공통 분모가 없는 것은 아니나, 현재의 연합 단체인 한국기술사회나 대한기술사회가 기술사라는 명칭을 제외하고는 정체성(identity) 부재로 인해 통합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토질및기초기술사의 범주를 넘어선 기술사로서의 사회적 지위와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경제 활동이 산업 분야별로 움직이는 현실에 맞추어, 좁게는 토목 분야 넓게는 건설 분야에 초점을 두고 기술사 단체의 연대 틀을 짜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2. 회원 권리 옹호 및 권익 신장 활동 강화

토기회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회로서 회원들의 권리 옹호 및 권익 신장을 위한 활동이 첫번째 목적이며 기술사법에서 정하는 기술사회의 목적 및 취지이기도 합니다.

다. 토기회에서는 향후 업역의 유지 및 확대, 불합리한 제도 및 법률의 개선 요구, 회원 상호간 과장 경쟁에 따른 저가수주 시정, 권익 신장을 위한 입법 청원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서울청 PQ를 계기로 제도개선 위원회(위원장: 전성기, 간사: 박재원, 송훈 회원)를 결성하였고, 자문변호사(정대화, 임재철)를 위촉하여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본 틀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제도개선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자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시정 탄원 및 공청회, 서명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도 제기할 계획입니다.

몇가지 예를 들면, 안전진단의 경우, 지하굴토 흠막이 가시설이 건축 분야 안전진단 대상으로 편제되어 있어, 우리 회원들이 핵심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책임지는 건축에서 담당하는 불합리성을 안고 있으며, 사면 분야는 아예 안전 진단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연례행사로 되풀이되는 산사태 등의 지반재해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이미 도입 시행되고 있는 '산사태방지법'과 같은 법의 제정을 촉구할 수도 있으며, 지하 굴착과 산사태 등의 지반 재해를 포괄하는 '지반재해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PQ 제도의 경우에는, 우리 회원들의 위상 및 권익과 가장 직결되는 사안이라 할 수 있는데, 업무 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 분야별 차별, 특정 분야의 지나친 우대 등을 하루속히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목적 구조물의 분야(도로, 항만, 철도 등)에 따라 PM이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제도 역시,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 설계 단계에서는 공사비 비중에 따라 토질및기초 또는 토목구조 등 전문 기술사들이 PM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도 과당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한 노력

도 필요한 바, 얼마전에는 기초굴착분과위원회가 주관하여 지하 굴토 흙막이 업무를 수행하는 회원들간의 협의회를 개최하여, 과장 경쟁에 따른 저가 수주와 부실 설계를 예방하기 위해 '흙막이 가시설 설계 및 감리 대가 기준'을 제정하였고 관련 회원들에게 공지, 시행할 예정인데, 이 역시 토기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과 관련하여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정 기술사 제도 등 기술사 공동의 이해 관계가 걸린 문제 등에 대해서는 타분야, 타종목 기술사들과 적극 연대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토기회의 위상을 제고함으로써 타종목 기술사들의 신망을 얻음으로써 업역의 합리적인 조정 및 제도 개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3. 대외 공익 활동의 강화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때로는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대외 공익 활동입니다. 토기회의 공신력과 위상은 사단법인이라 해서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토기회가 일차적으로 이익단체이긴 하나, 대외적으로 밥그릇 지키기에 골몰하는 것으로 비쳐진다면, 결국은 우리의 권익을 옹호하는 데에도 많은 장애가 조성될 것입니다.

일례로,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는 산사태, 붕괴 사고 등 각종 유형의 지반 재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을 통해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적으로 너무나 요원한 일하기에 현실은 토질및기초기술사와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절실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우리 토기회가 앞장서서 공익 차원의 봉사 활동을 조직하여, 무료 자문, 안전 점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토기회의 위상과 공신력은 상당 부분 향상될 것이고 그 결과는 결국 우리 회원들의 권익 신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재정 기반의 확충

살림살이의 중요성이야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회원 모두가 공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토기회의 일상적인 활동은 물론이고 권익 보호 활동, 대외 공익 활동 역시 안정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만 힘차게 전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어떻게해서 재정 기반을 확충할 것이냐인데, 현재 토기회의 수입 원천은 회비, 용역 수입, 광고 수익 등 크게 세가지입니다. 회비는 입회비와 종신회비 외에 연회비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재정 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광고 수익은 출판물(회지 연 4회 발간, 기술 발표 자료집 연 1회 발간) 제작 비용 및 발송 비용에 대부분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재정 확충에는 별 기여를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토기회의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결국 사업 수익을 늘려야 한다는 결론이며, 이를 위해서는 토기회 역시 일정 정도는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수익 원천을 개척해야 할 것입니다. 회원들의 관심과 협력이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바, 이 자리를 빌어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5. 조직력 강화

9월 30일 현재 가입 회원은 302명으로 전체 토질기술사 694명 대비 약 41%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설립 이후 예년 보다 가입 회원수가 증가하고 있고, 많은 기술사들이 가입 의사를 보유하고 있으나 바쁘기도 하

고 서먹하기도 한 관계로 가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토기회의 재정 확충, 조직력 강화를 위해 일차적으로 회원 가입률의 제고가 중요합니다. 토기회 차원에서도 물론 노력하겠지만 회원 여러분도각자가 주변 사람들에 대한 설득과 권유를 해야 할 것입니다.

토기회 차원에서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토기회의 심의위원 추천권을 적극 확보하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각 발주기관, 지자체의 심의 및 자문위원과 관련하여, 현재는 토기회를 통해 추천 의뢰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개인적인 연고와 지명도를 통해 추천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회원들의 토기회 활동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토기회 차원에서 추천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의뢰된 추천권에 대해서는 토기회 활동의 참여도, 토기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참여 공간의 다양화와 소모임의 활성화를 통해 젊은 회원들의 참여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젊은 기술사들의 낮은 가입률 및 참여율은 일차적으로는 인간관계의 폭이 넓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30대 신규 회원의 가입 및 참석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면상의 애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토기회에서는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등 소단위원의 기구를 다양화하는 한편, 지역/지구 모임, 친목 모임, 동호회 모임 등 각종 소모임을 활성화하여 젊은 토질기술사들의 교류 기회 및 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6. 직업 윤리 강화

첫번째, 가장 시급한 것으로는 불법적인 자격증 대여 관행을 시정하는 것입니다. 자격증 대여는 비단 토질기술

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전분야, 전종목에 걸친 문제이고 우리 사회의 고질화된 뿌리 깊은 병폐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자격증의 불법 대여 문제는 시민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 병폐 해소라는 당위성과 명분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토질및기초기술사의 사회적 가치 하락을 예방하기 위한 지구적 차원에서도 그 필요성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토질및기초기술사의 실적 급증 이후 질적 하락 및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공급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많기에 이 자리에서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겠지만, 적어도 자격증의 불법 대여에 따른 부작용만이라도 시급히 해소하여 토질기술사의 명예 실추 및 가치 하락을 하루속히 막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설계 품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그릇된 동업자 의식을 시정하는 것입니다. 회원들이 각종 발주기관의 심의 또는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회원들의 설계 결과물을 심의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회원간의 온정주의로 인해 부실 설계인 경우에도 엄격히 심의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봐주기식 심의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토질기술사 전체의 명예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설계비 및 PQ 심사 배점 기준에까지 영향을 미쳐 회원 전체의 권익을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지난 봄에 있었던 서울청 PQ 기준으로서, 당시 공무원들이 토질기술사들을 얼마나 얕잡아보고 심지어 적대감까지 갖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토기회에서는 앞으로 윤리 강령을 제정하여, 자격증 불법 대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회원 상호간 건강한 긴장 관계의 유지를 권고하여 그릇된 동업자 의식을

시정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자격증 불법 대여에 대해서는 자발적 시정을 지속적으로 홍보, 권유할 것이며 끝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적극적인 자구 조치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7. 상근 기술사 제도 도입 및 산하 상설 기구의 구축

그림이 아무리 좋아도 실현되지 못하면 허사일 뿐입니다. 좋은 계획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과 조직이 있어야 하는 바, 중장기적으로 볼 때 토기회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공신력과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상근 기술사를 두어야 합니다. 단순한 실무자로서가 아니라 토기회 전반을 이해하고 관리, 조직해야 하며, 특히 토기회의 재정 기반 확충과 관련하여 수익 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지반재해방지센터'와 같은 특별 기구를 토기회 산하에 조직하고 중장기적으로 상설화함으로써 회원들의 참여 공간을 확대, 수익 사업 기반 확대, 토기회의 공신력 및 위상 제고, 대외 공익 활동의 원활한 수행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맺음말

현재 토기회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사단법인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가지고 안팎의 요구 및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단결력이 필요합니다. 현 토기회 집행부는 열린 자세로 토기회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여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회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참여를 언제나 환영하며 회원들의 참여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기회가 권위와 신망을 인정받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참여와 성원, 아낌없는 비판을 당부드립니다.